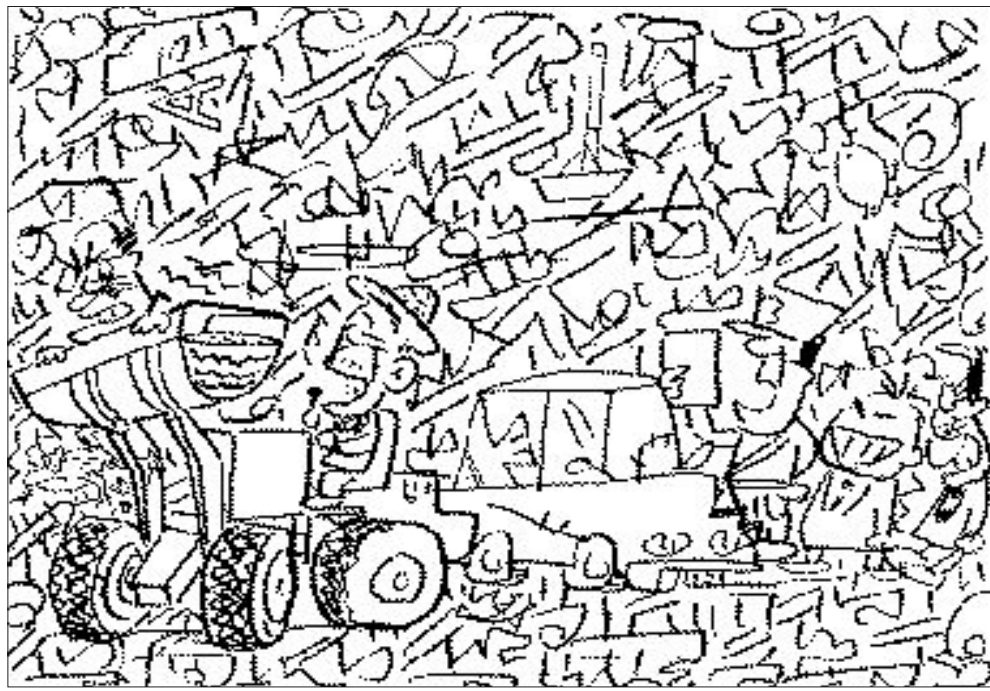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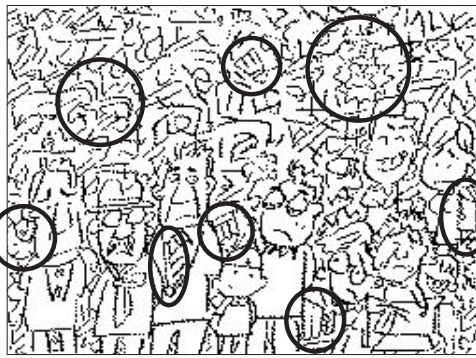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32>



찾아보세요 송사리, A자, 종이배, 열대어, 수박, 개구리, 병아리, 슬리퍼, 조각칼

화끈한 농부

국회의원들을 실은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절벽 아래 논두렁으로 추락했다. 때마침 농부가 그 현장을 목격한 뒤 땅을 파고 국회의원들을 모두 정성껏 묻어주었다. 며칠 뒤 파출소장이 농부를 찾아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농부는 파출소장에게 국회의원을 전부 묻어 주었노라고 말했다. 파출소장: 아니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겁니까? 농부: 뭐 몇 사람이 살아있다고 외쳤지만 그 사람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지난주 정답

은행잎, 풍당연꽃, 성냥개비, 셔플룩, 불림림, 디미미, 갈매기, 사자, 펜촉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백윤옥 <광주시 동구 학동> 김대욱 <강진군 대구면>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30년 7월 13일 제1회 월드컵 축구

1930년 남미의 축구 강국 우루과이에서는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다. 7월 13일 FIFA의 주관으로 유럽 4개국, 남·북아메리카 13개국이 우루과이를 찾아 18일간의 축구 열전에 들어갔다. 올림픽과 더불어 세계인의 스포츠제전으로 불리는 월드컵축구대회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다. 1920년대 초반 유럽에서는 클럽 축구가 활성화 되면서 축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마추어 정신을 강조하는 올림픽에 프로 선수들이 참여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따르자 FIFA는 프로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과시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FIFA는 1928년 총회를 열고 1930년 축구대회 개최를 결정하고 개최국 물색에 나섰다. 첫 개최국의 영광은 독립 100주년을 맞은 우루과의 몫으로 돌아갔지만 대회가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축구의 중심지였던 유럽국가들이 남미에서 축구 대회가 열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동거리상의 문제를 들어 대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유럽과 남미의 축구 자존심 대결이 펼쳐졌다. 다행히 FIFA회장 줄리메의 중재 끝에 1930년 7월 13일 역사적인 월드컵이 탄생하게 됐다.

프랑스의 대명명 기념일과 무산 위기의 월드컵을 구해낸 프랑스 출신 줄리메 회장의 예우차원에서 우루과이가 개막전을 양보해 1회 대회 개막전의 주인공은 프랑스와 멕시코가 차지했다. 지역 예선없이 초청형식으로 월드컵에 출전한 13개국은 30일까지 18일간 열전을 펼쳤고, 43만 4천500명의 관중이 찾아 월드컵의 탄생을 지켜보았다. 7월 30일 대망의 결승전에는 남미의 축구 강

호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맞붙었고, 첫 대회 MVP 게스트로 소개된 미국의 해키편로 우루과이가 4-2로 우승을 차지했다. 제 1회 월드컵 개최국 우루과이는 올림픽 2연패에 이어 첫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FIFA 회장 줄리메로 부터 우승컵을 수여받았다. 우승컵은 프랑스 조각가인 아베르 사프가 승리의 여신이 팔을 뻗어 팔각형 컵을 받들고 있는 형태로 조각한 금금 트로피였다. 지난 1970년 브라질이 멕시코 월드컵에서 통산 3회 우승을 달성하면서 브라질에 영구 수여했던 이 트로피는 월드컵을 위해 헌신했던 줄리메 회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줄리메컵'으로 불리고 있다.



1930년 제1회 우루과이 월드컵대회를 기념해 제작된 대회 포스터.

수 차례 도난과 분실의 고난을 겪은 '줄리메컵'은 지난 1983년 브라질축구협회 사무실에서 도난당한 뒤 자취를 감췄다. 현재 브라질축구협회는 원본 대신 복제품을 소장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리빙 센스

오징어 껌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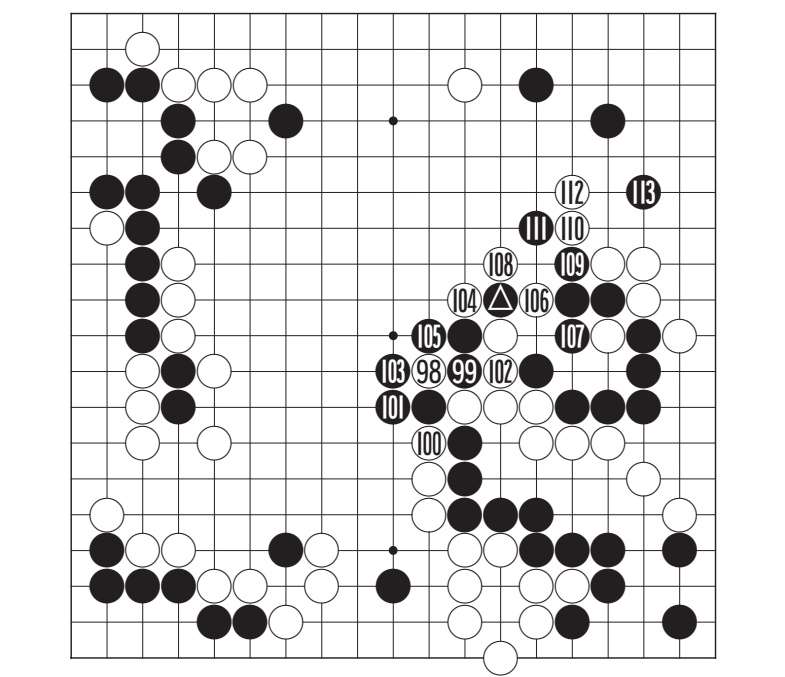


오징어다리 2마리분 껌찐 10장 청·홍고추 1개씩 부침가루 100g 달걀 1개 고추장 1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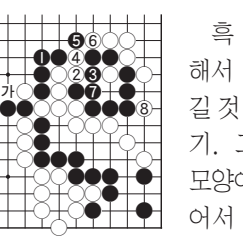
- 1. 오징어 다리를 잘게 썰어 놓는다.
2. 껌찐이 씻은 껌찐은 가늘게 채 썰어준다.
3. 청고추와 홍고추도 모양대로 썰어 놓는다.
4. 부침가루와 달걀을 넣고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반죽을 만든다.
5. 반죽에 준비해둔 재료를 넣고 고추 섞어 준다.
6. 팬에 기름을 두른 뒤 한 스푼씩 퍼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내면 향긋한 오징어 껌찐전이 완성된다. 입맛에 따라 반죽에 고추장을 풀어 넣어주면 매콤한 전을 만들 수 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9일(음 6월 7일 庚戌)

Table with 12 columns representing the 12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제17회 광일승 전주전남지역대회



참고도

만남자리 빵때림 3회전 2국 6보 (98~113)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잇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나 당장 '가'로 밀어오는 수도 겁나고 백 2 이하 6까지 나가 끊는 수도 성립한다. 8가지 면 오히려 흑이 잡고고 만다. 반대로 허우석 5단은 손바람을 내고 있다. 신나게 106까지 물었다 때 흑 107이 쓰러진 후퇴로 결국 만남자리 빵때림을 허용하고 말았다. 허 5단은 기분이 좋은 나머지 108로 따내고 말았는데 이 수로 109에 막았으면 더 뒤편 필요도 없었다. 늦추는 바람에 113으로 연습을 당해 조금 시끄러워 있다. <오규철 9단·본부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전영규 천원전 8강 진출
전영규 3단이 8일 서울에서 열린 제 13기 박스스페 천원전 16강전에서 김승재 2단을 상대로 232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전영규는 원성진 9단과 강유택 초단의 승자와 준결승전 진출을 다투게 됐다. 또 이날 승점을 보태면서 올해 14승7패가 됐다. 이번 대회는 예선 통과자 12명과 본선 시드 4명(원성진, 강동윤, 안조영, 이세돌) 등 총 16명이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에 40초 초읽기 3회. 상금은 우승 2천만원, 준우승 1천만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주택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Advertisement for Dermo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더마플라스트 밴드'.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English: 'Are you ready to get to work?' with dialogue and vocabulary.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Korean: 'むし暑くて過(す)ごしにくいほどです.' with dialogue and vocabulary.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Chinese: '多不多? 많이?' with dialogue and vocabulary.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Japanese: '沐猴而冠(목후이관) 머리감을 목, 원숭이 후, 말이을 이, 갓 관' with explanation and vocabulary.